

2024. 2. 15.(목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4년 2월 14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미래한강본부 공원부 공원시설과

공 원 부 장	허현수	3780-0627
---------	-----	-----------

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: 4매

공원시설과장	양돈욱	3780-0840
--------	-----	-----------

서울시 '한강 눈썰매장' 13만여 명 발걸음.. 개장 이래 '최다 방문객'

- 12일(월) 폐장한 '한강공원 눈썰매장(뚝섬·잠원·여의도)' 방문 전년대비 56%↑
- '04년 '뚝섬'에 첫 개장 이후 잠원('22)·여의도('23) 합해 최초 10만 명 돌파
- 지난해 연말, 장애인 264명 초청해 눈썰매 즐기는 '약자와의 특별한 동행' 행사
- 시 "한강공원에서 운영되는 여가문화시설 이용 편의와 안전 지속 높여 나갈 것"

- 지난 12일(월) 53일간의 운영을 종료한 '한강공원 눈썰매장(뚝섬·잠원·여의도)'에 역대 최다 인원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. 전년 대비 56% 늘어난 수치다.
- 서울시는 작년 12.22.(금) 운영에 들어가 2.12.(월)까지 운영된 '한강공원 눈썰매장'에 총 13만 6,051명이 찾았다고 밝혔다. 개장 31일 만인 1.21.(일) 전년도 방문객 수(8만 7,243명)를 넘어섰으며, 38일 차인 1.28.(일)에는 개장 이래 처음으로 10만 명을 돌파했다.
- 눈썰매장별로는 ▲뚝섬 6만 1,444명 ▲잠원 2만 4,096명이 방문했으며, 올해 처음 개장한 ▲여의도에는 5만 511명이 찾았다. 평일

하루 평균 약 1,529명, 주말 및 공휴일에는 약 4,355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.

- 시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야외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'22년 잠원에 눈썰매장을 개장한 데 이어 지난해 여의도까지 신규 조성, 올해 총 3곳에서 운영되면서 방문객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.
 - 한강 눈썰매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'20년과 '21년 운영이 중단되었으나 감염병 유행이 지나간 뒤 잠원('22년), 여의도('23년)에 순차적으로 눈썰매장을 개장하여 운영해 왔다.

- 또 시내에서 겨울을 대표하는 놀이시설이자 나들이를 즐길 수 있는 데다 탁 트인 한강을 배경으로 눈썰매를 탈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시민의 발길이 이어진 것으로 봤다.
 - 눈썰매 외에도 눈놀이 동산, 소형 놀이기구, 야구공 던지기 등 다양한 체험시설이 마련돼 방학을 맞이한 어린이뿐만 아니라 친구, 연인 등 남녀노소 모두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.

- 한편 서울시는 한강공원 눈썰매장 공식 개장 전날인 12.21.(목) 뚝섬한강공원 눈썰매장에서 한국지체장애인협회, 민간기업과 함께 지체장애인, 발달장애인 등 총 264명을 초청해 '약자와의 특별한 동행 행사'를 개최했다.
 - '약자와의 특별한 동행'은 비장애인과 함께 눈썰매장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편하고 안전하게 눈썰매를 즐기는 기회를 전하기

위해 기획된 행사로, 시는 장애인 전용 리프트와 경사로 등을 설치해 탑승 편의를 제공했다.

- 서울시는 앞으로 한강공원 수영장, 야외결혼식장, 캠핑장 등 시설을 활용하여 다양한 약자와의 동행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.

-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“올겨울 시민에게 행복한 추억을 선사했던 눈썰매장은 다가오는 여름 시원한 휴식을 선사하는 수영장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바란다”며 “앞으로 한강공원에서 운영되는 여가문화시설이 시민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도록 이용 편의와 안전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것”이라고 말했다.

붙임1. 한강공원 눈썰매장 사진

〈붙임1〉

한강공원 눈썰매장 사진



독섬 눈썰매장



여의도 눈썰매장



눈놀이 동산